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노인의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한편, 노인의 자산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적 복지 체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 소득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이고, 이들은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빈곤 완화 효과도 작다. 반면,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은 소득 빈곤에 덜 취약하고,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큰 편이다. 후기 노인 가구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생애주기에서 노인은 자산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되, 소득만 빈곤한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유동화하는 정책이 유의미할 수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국가데이터처, 2024.9.23.). 더욱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OECD, 2024.12.). 노인 빈곤은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여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해한다(권혁철, 2019;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김태환, 2024).

한편, 1970년대 한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저축이 중심이 된 자산을 기반으로 복지 체제가 구축되었다(김도균, 2020). 주택 금융화가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출을 활용하지만(김수현, 2022), 여전히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자산은 소득과 함께 가계가 경제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경제 활동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한 후 노년기에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한다(김성아 외, 2021; 김성아 외, 2023; 이영욱 외, 2023). 현세대 노인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OECD의 데이터베이스와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의 실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체 인구 집단의 빈곤 실태를 기준으로 노인 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한다. 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와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65~74세의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로 재분류한다. 다만, 주요국과의 국제비교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므로 66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은 조사 시점 전년도 유량(flow)을, 자산은 조사 시점 기준 저량(stock)을 측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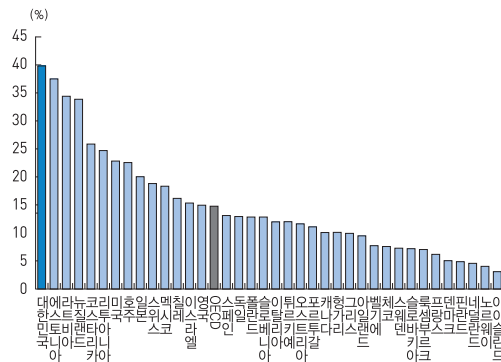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 국제비교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소득 빈곤율은 [그림 vi-1]과 같다. 2007년 OECD 가입국의 평균 소득 빈곤율은 11.5%인데, 최근 시점에는 11.1%로 0.4%p 감소했다. 2007년에 소득 빈곤율이 5.5%로 가장 낮았던 체코는 최근 시점에 6.2%로 0.7%p 증가한 한편, 같은 시기 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라트

비아는 18.6%에서 16.2%로 2.4%p 감소했다. 한국의 소득 빈곤율은 2007년 14.8%에서 최근 시점 기준 14.9%로 0.1%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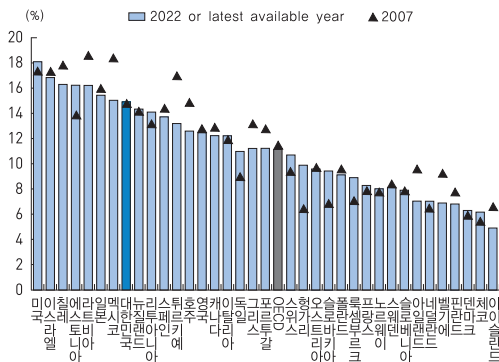
66세 이상 노인의 최근 시점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 빈곤율은 14.8%이다. 같은 시기 전체 인구 집단의 소득 빈곤율 11.1%보다는 다소 높다. 아이슬란드의 노인 빈곤율이 3.1%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에스토니아(37.4%), 라트비아(34.3%), 뉴질랜드(33.8%) 순으로 한국의 뒤를 따르지만, 다섯 번째로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높은 코스타리카는 25.8%로, 앞의 네 나라와 차이가 크다.

[그림 vi-2]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 2022년 이후



주: 1) 소득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66세 이상 노인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그림 vi-1] 주요국의 소득 빈곤율, 2007, 202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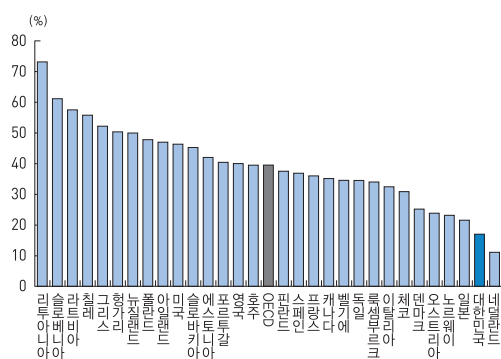


주: 1) 소득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OECD에서는 자산 빈곤율을 몇 가지 정의를 활용해 측정한다. 첫 번째는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 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개월분 미만

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로 측정하는 자산 빈곤율이다. 여기에서 유동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채권 및 기타 부채 증권, 투자신탁 및 기타 투자 펀드, 그리고 연금이 아닌 기타 금융자산의 합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인 39.3%의 절반 이하이고, 네덜란드의 1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 자산 빈곤율은 리투아니아가 73.1%로 가장 높고, 슬로베니아 60.9%, 라트비아 57.4%의 순이다.

[그림 vi-3] 주요국의 자산 빈곤율 1, 2018년 이후



주: 1) 자산 빈곤율 1은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 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세 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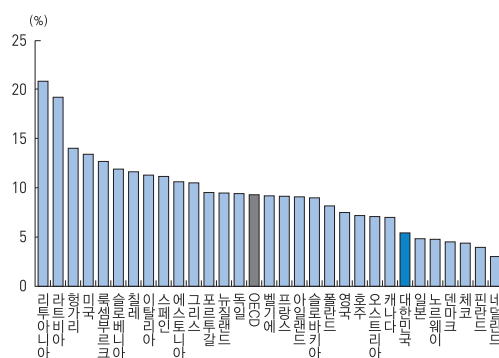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자산 빈곤율의 두 번째 정의는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 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세 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이다(그림 vi-4). 자산 빈곤과 소득 빈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의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5.4%로 OECD 평균인 6.3%

에 미치지 못한다. 라트비아의 자산 빈곤율은 20.8%로 자산만 고려한 [그림 vi-3]의 결과와 일관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자산 빈곤율만 고려한 [그림 vi-3]의 결과와 달리,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네덜란드(3.0%), 핀란드(4.0%), 체코(4.4%), 덴마크(4.5%), 노르웨이(4.8%), 일본(4.8%)에 이어 일곱 번째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종합하면, 국제비교 관점에서 노인의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 실태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한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림 vi-4] 주요국의 자산 빈곤율 2, 2018년 이후



주: 1) 자산 빈곤율 2는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 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세 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 추이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 가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표 vi-1).

첫 번째 유형인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2017년 23.1%에서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24년에는 27.2%이다. 이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은 2017년 15.6%였는데, 2024년에는 21.1%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가구 비율의 절댓값보다 가구원 비율의 절댓값이 크다는 것은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수가 노인이 아닌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수보다 적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노인 가구주 가구 중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017년 13.5%에서 2024년에는 15.4%로, 가구원의 비율은 9.9%에서 12.9%로 늘었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같은 시기 9.6%에서 11.8%로, 가구원의 비율은 5.7%에서 8.2%로 늘었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2017년 15.8%에서 2020년에 20.2%까지 늘었다가 2024년에는

19.3%로 나타났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 비율은 2017년 8.3%에서 2024년 12.0%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낮은 추세를 유지한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의 비교를 통해 공적이전이 빈곤율을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표 vi-2〉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공적이전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시장소득 기준 전체 소득 빈곤율은 20.0%인데, 같은 시점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빈곤율은 17.5%로 빈곤 완화 효과는 12.7% 정도이다. 시장소득 기준 소득 빈곤율은 2024년까지 19~22% 범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빈곤율은 점차 감소해 2023년 기준 14.9% 정도로, 빈곤 완화 효과는 매년 점차 강화되어 2022년 26.4%, 2023년 24.9% 정도이다. 한편, 팬데믹 이후 소비가 위축되었던 시장소득 기준 소득 빈곤율이 21.7%까지 늘었던 2020년에는 적극적인 정부지출의 결과 빈곤 완화 효과가 30.3%에 이른다.

노인 빈곤율에 주목해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 57.6%에서 2019년에 58.0%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완화되어 2023년에는 53.5%

〈표 vi-1〉 노인가구 유형별 분포

연도	(%)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2017	23.1	15.6	13.5	9.9	9.6	5.7	15.8	8.3
2018	24.5	16.6	13.9	10.4	10.6	6.3	16.9	9.1
2019	26.2	17.9	14.8	11.0	11.4	6.9	18.3	10.0
2020	28.3	19.7	15.7	11.7	12.6	7.9	20.2	11.4
2021	27.3	19.5	15.5	11.9	11.8	7.5	19.1	11.0
2022	26.7	19.7	15.3	12.1	11.4	7.5	18.7	11.0
2023	26.7	20.4	15.3	12.6	11.4	7.8	18.7	11.3
2024	27.2	21.1	15.4	12.9	11.8	8.2	19.3	12.0

주: 1) 조사 시점 기준임.

2) 가구원은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사람의 수로서 가구주를 포함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 42.4%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35.2%까지 줄었다가 2023년에 36.1%로 다소 늘었다. 빈곤 완화 효과는 2016년 26.4%에서 2021년 36.5%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줄어 2023년에는 32.5% 정도이다.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에 45.2%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빈곤율보다 다소 낮았다. 2019년에 46.1%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해 2023년에는 40.5%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7년 28.8%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2.3%까지 줄었다가 2023년에는 22.7%로 다소 증가했다. 빈곤 완화 효과는 2017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47.0%에 이르렀다가 다소 감소해 2023년 기준 44.1%로 나타난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 79.1%에 이른다. 이후 점차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73.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에 66.1%이고 빈곤 완화 효과는 16.5% 정도로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효과보다 작았다. 다만, 2021년까지 빈곤 완화 효과가 26.8%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22.4%로 다소 감소했다. 최근 시점 기준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소득 빈곤율은 57.3%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 노인의 소득 빈곤율, 2016~2023

(%)

연도	전체		
	처분가능소득 기준(A)	시장소득 기준(B)	빈곤 완화 효과 ((B-A)/B×100)
2016	17.5	20.0	12.7
2017	17.0	19.9	14.5
2018	16.5	20.2	18.4
2019	16.1	21.0	23.4
2020	15.1	21.7	30.3
2021	14.8	21.1	29.9
2022	14.9	20.3	26.4
2023	14.9	19.9	24.9

연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65~74세 가구주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2016	42.4	57.6	26.4	28.8	45.2	36.2
2017	40.6	56.1	27.6	27.2	43.3	37.1
2018	40.5	57.9	30.1	26.8	45.3	40.7
2019	39.8	58.0	31.3	25.6	45.2	43.3
2020	37.3	57.5	35.1	25.3	46.1	45.1
2021	35.2	55.5	36.5	23.0	43.4	47.0
2022	35.3	54.2	34.8	22.3	41.1	45.7
2023	36.1	53.5	32.5	22.7	40.5	44.1

연도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2016	66.1	79.1	16.5	59.9	76.9	22.1
2017	62.9	77.4	18.8	57.8	75.3	23.2
2018	62.0	77.9	20.4	57.8	78.0	25.9
2019	60.8	77.0	20.9	55.0	75.3	26.9
2020	56.4	75.6	25.5	52.8	76.0	30.6
2021	55.0	75.2	26.8	51.3	75.7	32.2
2022	56.4	75.3	25.1	52.6	75.3	30.2
2023	57.3	73.8	22.4	52.4	73.1	28.3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 단위 분석 결과임.

3)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4) 소득은 조사 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2016년에 76.9%인데, 같은 시기에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59.9%로 빈곤 완화 효과가 22.1% 정도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8년에 78.0%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73.1%까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1년에 51.3%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52.4%로 다소 증가했다. 빈곤 완화 효과는 2021년에 32.2%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28.3% 정도이다.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이 노후소득원이 되는 주된 공적이전소득이 후기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노인 빈곤의 현실태를 연령대별로 포착했을 때 더 취약한 후기 노인의 빈곤 수준을 완화하고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의 자산 구성과 빈곤 추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가구 자산의 3/4 정도가 실물자산이다. 실물자산은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소득으로 유동화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25% 내외를 유지하

고 있다. <표 vi-3>을 보면, 부채의 비율은 2016년 18.4%에서 2023년 16.9%로 20%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83~86% 정도를 유지하여, 전체 가구보다 높은 편이다. 부채의 비율은 2016년 12.0%에서 2023년 9.6%로 전체보다 낮다.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의 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은 2016년 84.1%에서 다소 감소해 2023년 81.8% 정도이지만, 여전히 전체보다는 높은 편이다. 부채의 비율은 2016년 13.7%에서 최근 10.9%로 다소 감소하였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2016년 83.0%에서 점차 증가해 2023년에는 85.6% 정도이다. 총부채 비율은 2016년 8.0%에서 감소해 2023년에는 7.1%이다.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가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약간 낮고, 부채 비율은 다소 높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2016년 84.9%에서 2020년까지 84%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86.1%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에는 83.6%이다. 부채 비율은 2016년 9.9%에서 2023년 8.8%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노인 가구의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다소 높고, 부채 비율은 낮다. 노인 가구 중에서는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vi-3〉 노인 가구의 자산 구성, 2016~2023

(%)

연도	전체		
	금융자산 (A, $A/(A+B) \times 100$)	실물자산 (B, $B/(A+B) \times 100$)	총부채 (C, $C/(A+B) \times 100$)
2016	25.1	74.9	18.4
2017	24.6	75.4	18.2
2018	24.5	75.5	18.3
2019	23.6	76.4	18.5
2020	22.5	77.5	17.5
2021	22.1	77.9	16.7
2022	23.9	76.1	17.4
2023	24.8	75.2	16.9

연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65~74세 가구주 가구		
	금융 자산	실물 자산	총부채	금융 자산	실물 자산	총부채
2016	16.2	83.8	12.0	15.9	84.1	13.7
2017	16.4	83.6	10.9	16.5	83.5	12.2
2018	16.4	83.6	11.3	16.8	83.2	12.8
2019	17.0	83.0	11.3	17.5	82.5	12.7
2020	16.3	83.7	10.0	17.5	82.5	11.2
2021	14.9	85.1	9.8	16.4	83.6	11.1
2022	15.9	84.1	10.2	17.5	82.5	11.5
2023	16.9	83.1	9.6	18.2	81.8	10.9

연도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금융 자산	실물 자산	총부채	금융 자산	실물 자산	총부채
2016	17.0	83.0	8.0	15.1	84.9	9.9
2017	16.3	83.7	8.2	15.6	84.4	8.4
2018	15.4	84.6	8.1	16.9	83.1	8.8
2019	15.9	84.1	8.8	16.6	83.4	9.8
2020	14.2	85.8	7.7	16.4	83.6	8.4
2021	11.9	88.1	7.2	13.9	86.1	8.7
2022	12.9	87.1	7.7	15.4	84.6	9.2
2023	14.4	85.6	7.1	16.4	83.6	8.8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 단위 분석임.

3)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 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산 빈곤을 정의하는 합의된 방식은 없다. 〈표 vi-4〉와 같이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맥락을 고려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순자산이 소득 빈곤선 3개월분 이하인 경우를 자산 빈곤으로 정의하면(Haveman, Wolff, 2001), 전체 자산 빈곤율은 2024년에 19.3% 정도이다. 2020년 20.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5명 중 1명은 자산이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자산 빈곤율을 보면, 2017~2021년에 21~23% 범위에서 유지되다가 2022년부터 20%대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20.3% 정도이다.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자산 빈곤율은 2017~2021년에 17~19% 범위에서 유지되다가 2022년에 16.1%로 감소한 이후 다소 증가해 2024년에는 16.4% 정도이다. 이는 전체 자산 빈곤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자산 빈곤율은 2017~2020년에 28~30% 범위에서 유지되다가 2024년에는 26.5%로 다소 감소했지만,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가구원의 자산 빈곤율은 2017~2020년에 26~28% 범위에서 유지되다가 다소 감소해 2024년에는 25.5%이다. 이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자산 빈곤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vi-4〉 노인 가구의 자산 구성, 2016-2023

(단위: 천원)

연도	전체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65~74세 가구주 가구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노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
2017	20.2	22.6	18.5	29.8	27.3
2018	19.6	21.5	17.5	28.1	26.3
2019	20.1	22.5	17.8	29.9	27.7
2020	20.3	22.7	18.1	29.4	26.7
2021	19.1	21.4	17.4	27.6	25.8
2022	18.8	20.3	16.1	26.9	25.3
2023	19.0	20.5	16.8	26.6	25.9
2024	19.3	20.3	16.4	26.5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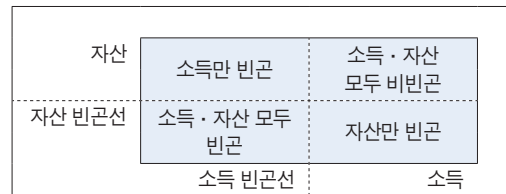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3) 조사 시점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실태

노인의 경제적 삶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조합하여 결합 빈곤 실태를 확인한다. [그림 vi-5]는 소득 빈곤선과 자산 빈곤선을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과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빈곤한 집단,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결합 빈곤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vi-6]을 보면, 전체 인구 집단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2017년 70.2%에서 다소 증가해 2024년에는 72.5%로 늘었다. 소득만 빈곤한 집단은 같은 기

[그림 vi-5] 소득·자산 결합 빈곤 개념



주: 1) 소득 빈곤선은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 중위 소득의 50%이고, 자산 빈곤선은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임.
 2) 김성아 외(2021, p.81), (김성아 외, 2023), 이영욱 외(2023, p.8)의 그림을 참고함.
 출처: 저자 작성

간 9.6%에서 8.2%로 다소 줄었다. 자산만 빈곤한 집단은 12.4%에서 12.6%로 유지되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7.8%에서 2024년 6.7%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2017년 51.1%로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 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증가해 2024년에는 57.0%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만 빈곤한 집단은 2017년 26.3%에서 2024년 22.7%로 줄었다. 자산만 빈곤한 집단은 같은 기간 6.5%에서 6.9%로 약간 증가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16.1%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2017년 63.2%에서 2024년 69.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만 빈곤한 비율은 18.3%에서 14.3%로 줄었고, 자산만 빈곤한 집단은 7.9%에서 8.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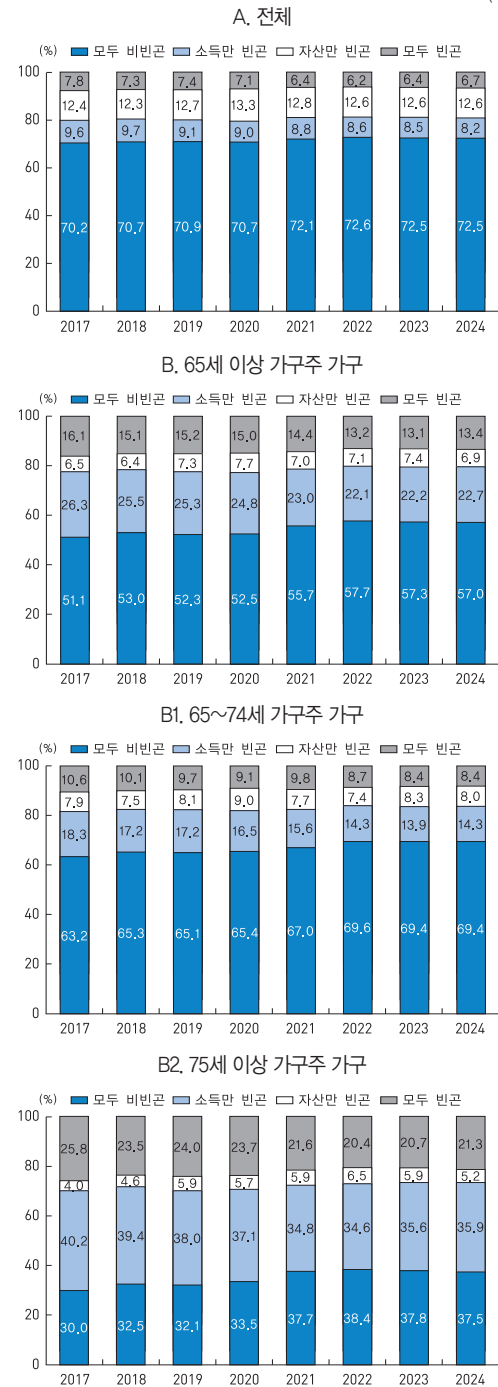
보인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10.6%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에는 8.4% 정도이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율은 2017년 30.0%로 전체 인구 집단이나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보다 낮지만, 점차 증가해 2024년에는 37.5% 정도이다. 소득만 빈곤한 집단의 비율은 2017년 40.2%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에는 35.9% 정도이다. 자산만 빈곤한 집단의 비율은 2017년 4.0%에서 2022년 6.5%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해 2024년에는 5.2% 정도로 나타나, 전체 인구 집단이나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에 비해 낮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23.1%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 1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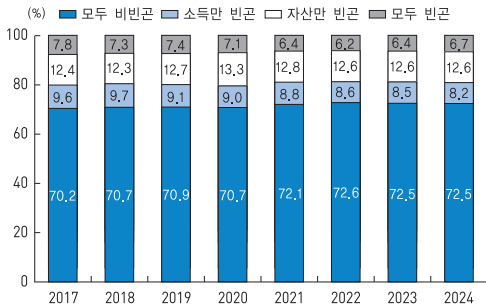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율은 2017년 35.8%에서 2022년 43.1%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해 2024년에는 41.8%로 나타났다. 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하고, 전기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소득만 빈곤한 비율은 2017년 36.8%인데, 점차 감소해 2024년에는 32.8% 정도이다. 자산만 빈곤한 비율은 2017년 4.3%에서 다소 증가해 2024년 5.8%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의 비율은 2017년 23.1%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 19.6%로 나타났다.

[그림 vi-6] 노인의 소득·자산 결합 빈곤, 2017~2024

(%)



C.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3)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4) 조사 시점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맺음말

한국은 [그림 vi-1]과 같이 소득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자산 빈곤율은 [그림 vi-3]이나 [그림 vi-4]와 같이 OECD 가입국 중에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적 복지체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 결국, OECD 가입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 빈곤율을 보이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서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에 의한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생활비에 근접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36.1%로, OECD 가입국의 노인들에 비해 한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다(표 vi-2).

더욱이 노인 가구 중에서도 65~74세 전기 노인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작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노후 소득원으로서 공적이전소득의 주된 구성 요소인 공적연금은 현세대 후기 노인의 빈곤을 완화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완화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 빈곤의 현 실태를 연령대별로 포착했을 때, 더 취약한 후기 노인의 빈곤 수준을 완화하고 이들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현세대 노인의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조합해 결합 빈곤 실태를 나타낸 [그림 vi-6]에서는 소득과 빈곤이 모두 빈곤한 집단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하는 집단이 된다. 그런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만 빈곤한 집단은 대응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때, <표 vi-3>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들이 노후에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한

다는 점이 단서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리적
효용을 누리면서도 노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이 노인 빈곤을 완화
하는 데에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철. 2019.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3), 135–160.
- 김도균. 2020.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E-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성아, 노현주, 박형준, 신영규. 2023.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 2022.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택의 금융화’ 논의,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 「주택연구」, 30(2), 161–195.
-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태환. 2024. “노인 빈곤과 건강의 경로 메커니즘 분석: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의 조절된 매개효과”. 「노인복지 연구」, 79(3), 325–357.
- 이영욱, 이승희, 권형준, 한영은, 이수은. 2023.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데이터처. 2024.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4.9.23.].
- Haveman, R., & Wolff, E. N. 2004.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2), 145–169.